

미국인의 성역할 태도와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

Sex Role Orientation and the Amount of Time Spent in Household Production by the Husband and the Wife in the U.S.

인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김 호 정

Dept. of Home Management, Inje Univ.
Full-time Instructor: Hyochung Kim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과 분석 및 논의 |
| II. 선행 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ex role orientation on the amount of time spent in meal preparation and cleanup, clothing care, and indoor cleaning accomplished by husbands and wives in couple-headed households in the U.S.. The overall research hypotheses examined were: (1)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husband and wife and the sex role orientation of the husband and wife; (2) for both husbands and wives,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orientation and the amount of household production time that is accomplished by each individual; and (3) the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orientation and the amount of household production time remains when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factors are controlled. The 1981 data from the 1975-1981 Time Use Longitudinal Panel Study collected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major finding is that a relationship between sex role orientation and the amount of time spent in three household production activities was not found, when all independent variables were controlled. That is, sex role orientation was not a predictor affecting the amount of time that husbands and wives spend on meal preparation and cleanup, clothing care, and indoor cleaning.

I. 서론

남편과 아내가 각각 고유의 성(性)에 따라 가족 내에서 자신의 고유 영역을 갖는 것은 많은 동양과 서구 사회에서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 즉, 가족의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남편의 영역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행하는 것을 아내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에 관한 태도가 좀 더 평등하게 변화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Brogan & Kutner, 1976; Erdwins, Tyer & Mellinger, 1983; Keith & Schafer, 1986; Rao & Rao, 1985; Smith & Fisher, 1982; Thornton, Alwin & Camburn, 1983). 만약 실제로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평등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면, 부부 사이의 가사노동 분담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역할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50년 미국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비율은 모든 근로자의 29%를 차지했고, 기혼 여성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52%를 차지했다. 1976년에는 모든 근로자의 45%가 여성이었고, 기혼 여성은 모든 여성 근로자의 60%를 차지했다(Dickinson & Leming, 1990). 이러한 여성의 사회 진출은, 여성이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수입의 한 부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가사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여성의 이중 역할에 대한 보답을 하리라는 기대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아내들이 자신의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가사노동에 지속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Berk & Berk, 1979; Fox & Nickols, 1983; Nickols & Metzen, 1978; Rexroat & Shehan, 1987; Robinson, 1988; Sanik, 1981; Walker & Woods, 1976). 또한 결혼 후 가사노동에 "평등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남편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akley, 1974).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부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에 있어서 가족마다 많은 차

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남편은 다른 남편에 비해 가사노동에 더욱 많은 시간 참여하는 등 가사노동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보다 융통성을 보이는 가족이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남편과 아내의 연령,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가계 수입,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고용 상태 등을 고려해 왔다. 또 다른 연구들은 성역할 태도를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로 고려해 왔다. 그러나, 성역할 태도가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본 선행 연구들은, 성역할 태도가 개인의 연령, 교육 수준, 고용 상태, 그리고 수입과 같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간과해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역할 태도가 가사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연령, 교육 수준, 고용시간, 자녀의 수, 그리고 가계 수입이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의 고찰

1.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많은 선행 연구들은 가족 구성원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심을 가져 왔다. 본 연구를 위해서, 기혼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만 선행 연구로서 고찰하였다.

1)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선행 연구의 결과, 자녀의 수, 막내 자녀의 연령, 아내의 수입, 남편의 수입, 아내의 고용시간, 남편의 고용시간, 남편의 교육 수준, 그리고 아내의 연령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밝혀졌다. 이 중, 자녀의 수, 막내 자녀의 연령, 아내의 수입, 그리고 남편의 고용시간에 대한 결과는 서로 일치한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막내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아내의 수입이 적을수록, 그리고 남편의 고용시간이 길수록, 남편은 가사노동에 적은 시간 참

여하였다(Abdel-Ghany & Nickols, 1983; Berardo, Shehan & Leslie, 1987; Nickols & Metzen, 1978; Rexroat & Shehan, 1987; Sanik, 1981; Walker & Woods, 1976). 이 외의 다른 요소들에 있어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남편의 수입이 자신이 가사노동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Geerken와 Gove(1983)는 남편의 수입과 자신의 가사노동의 참여 시간 사이에 곡선적인(Curvilinear)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저수입층 또는 고수입층보다는 중간 수입층의 남편이 가사노동에 비교적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남편의 수입과 자신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Abdel-Ghany & Nickols, 1983).

한편, Nickols와 Metzen(1978, 1982)의 연구 결과는 아내의 고용시간이 길수록 남편이 가사노동에 더욱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많은 연구들의 결과에서는 아내의 고용시간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ox & Nickols, 1983; Sanik, 1981; Walker & Woods, 1976; Wheeler & Arvey, 1981).

남편의 교육 수준에 대해서, Nickols와 Metzen(1978), 그리고 Berardo 등(1987)의 연구 결과는 남편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bdel-Ghany와 Nickols(1983)의 연구에 의하면 남편의 교육 수준과 자신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은 아내의 연령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경향은 아내의 고용 상태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Walker와 Woods(1976)의 연구에 따르면, 아내가 고용된 경우, 나이가 많은 아내의 남편은, 나이가 적은 아내의 남편보다 가사노동에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내가 고용되지 않은 경우, 나이가 많은 아내의 남편은, 나이가 적은 아내의 남편보다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서 자녀의 수, 막내 자녀의 연령, 가계 수입, 아내의 고용시간, 아내의 교육 수준, 아내의 연령, 그리고 아내의 건강 상태 등이 고려되어 왔다. 선행 연구의 결과,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막내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가계 수입이 적을수록, 아내의 고용시간이 짧고, 교육 수준이 낮고, 연령이 많을수록, 아내가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bdel-Ghany & Nickols, 1983; Berardo et al., 1987; Dismukes & Abdel-Ghany, 1988; Hafstrom & Schram, 1983; Hall & Schroeder, 1970; Meiners & Olson, 1987; Nickols & Metzen, 1978; Rexroat & Schehan, 1987; Robinson, 1977; Sanik, 1981; Schram & Hafstrom, 1986; Shelton, 1990; Stafford, 1983; Walker & Woods, 1976).

한편, 아내의 건강 상태와 자신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본 Hafstrom과 Scharm(1983)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 상태가 나쁜 아내일 경우, 자신이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 상태가 나쁜 아내일 경우 가사노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강 상태가 좋은 아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그러나, Rexroat와 Shehan(1987)의 연구에 의하면 아내의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자신이 가사노동에 적은 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 상태가 나쁜 아내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은 아내의 경우에 비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거나, 또는 가사노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성역할 태도

남성과 여성은 각각의 성(性)에 따른 적당한 행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관념에 의하면, 남편은 가정의 경제적 책임술, 그리고 아내는 자녀를 돌보고 일상적인 가사노동을 수행하

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렇게 각기 주어진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행동을 '성역할'로 정의할 수 있다.

1)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성역할 태도는 성별, 연령, 종교, 그리고 여성의 고용 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성역할의 인식에 있어서 남성보다 덜 보수적인 것으로 보여진다(Canter & Ageton, 1984; Kutner & Brogan, 1974; Lipman - Blumen, 1972; Martin, Osmond & Hesselbart, 1980; McBroom, 1984; Rao & Rao, 1985; Tomeh, 1978; Zuckerman, 1981). 한편, Brogan과 Kutner(1976), Smith와 Fisher(1982), 그리고 Keith와 Schafer(1986)의 연구에 의하면,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에 비해 덜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Lipman-Blumen(1972)은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종교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즉, 유태교인, 회랍 정교회인, 무신론자, 그리고 종교를 가진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덜 보수적인 반면, 천주교 신자와 기독교인이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Martin, Osmond와 Hesselbart(1980)는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성역할 태도에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여성의 시장 노동 참여는 여성에게 가정 외적인 일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인 일을 접하는 경험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에게 보다 평등한 성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Thornton, Alwin과 Camburn(1983)은 결혼 후 여성의 시장 노동 참여가 여성으로 하여금 성역할에 대해 평등한 태도를 갖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2)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

성역할 태도가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수적인 성향을 갖는 남편이 가사노동에 훨씬 적은 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rrucci, Potter & Rhoads, 1978; Ross, 1987). Wheeler와 Arvey(1981)의 연구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남편이, 가사노동의 영역 중 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온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한편, 성역할이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Wheeler와 Arvey(1981), 그리고 Ross(1987)에 따르면 아내의 태도는 가사노동의 분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ird, Bird와 Scruggs(1984)의 연구는 성역할 태도가 가족 레크리에이션의 계획 또는 재정 관리와 같은 가사노동의 관리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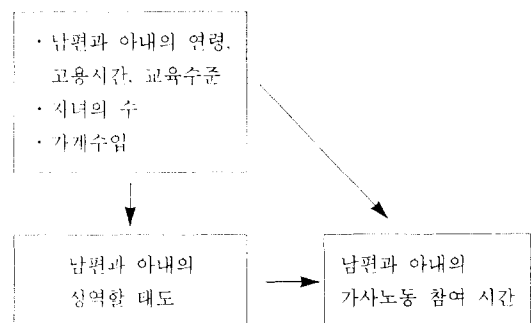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갖는다.

연구 문제 1. 남편과 아내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각각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성역할 태도와 각각의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시간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남편과 아내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성역할 태도와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

이 연구 문제를 위해 설정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2. 변수

1) 종속 변수

남편과 아내가 식사관리와 의복관리, 그리고 주생 활관리에 소비하는 시간이 본 연구의 종속 변수이다. 다양한 가사노동의 활동 중 이 세 가지 활동을 선택한 이유는 이 활동들이 전통적으로 아내에게 분담된 역할로서 성역할 태도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식사관리에 포함되는 활동들은 요리, 식탁차리기, 그리고 설거지 등이며, 의복관리에 포함되는 활동들은 세탁과 다림질 등이다. 끝으로, 일상적 집안 청소, 유리창 청소 등은 주생활관리에 포함된다.

2) 독립 변수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남편과 아내의 연령, 자녀의 수, 남편과 아내의 고용시간, 교육 수준, 그리고 가계 수입 등이다.

3) 중재(intervening) 변수

본 연구에 있어서 성역할 태도는 중재 변수로 여겨진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설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의 대부분은 남성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2)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은 따로 있으며, 서로 상대방에게 주어진 일을 해서는 안된다.

(3) 비취업 아내는 남편이 귀가한 후 아내의 일을 도와줄 것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4) 결혼한 남성은 자신이 원할 때면 아무 때나 혼자 밖에 나가도 괜찮다.

(5) 전일제(full-time)로 일하는 여성도 비취업 여성과 마찬가지로, 자녀와 애정이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6) 여성에게 있어서 여성 자신이 직업을 갖는 것 보다는 남편의 성공을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7) 여성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8) 자녀가 있는 여성은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

이 훨씬 행복하다.

(9) 남성과 여성은 집에서 가사노동을 분담해야 한다.

(10) 남성이 집안의 생계에 책임을 지고, 여성이 집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다.

남편과 아내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5개 범주(즉, 1. 매우 동의함 2. 동의함 3. 잘 모르겠음 4. 동의하지 않음 5. 매우 동의하지 않음)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 항목 (5), (7) 그리고 (9)를 제외하고, 높은 점수는 좀 더 평등한 성향을 나타내고, 낮은 점수는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항목 (5), (7) 그리고 (9)의 경우는 낮은 점수가 좀 더 평등한 성향을, 그리고 높은 점수는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3. 자료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해 1981년에 미시간 대학의 사회 연구 기관에서 수집된 1975-1981 Time Use Longitudinal Panel Study를 이용하였다. 1975년도의 표본은 미국의 37개의 주와 컬럼비아 특별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1981년도의 표본은 1975-1976 연구에서 수집된 세번째와 네번째의 자료로부터 추출되었다. 종단 연구의 단점으로, 응답자와 그들의 배우자를 연구에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981년도의 표본은 1975년의 표본과 같이 미국 거주자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에 필요한 시간 사용에 대한 자료는 한 해 동안 4번에 걸쳐 시간 사용 조사표(time record chart)를 통해 얻어졌고, 그 외의 고용시간, 가계 수입, 교육 수준과 가족의 성역할 태도와 같은 정보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원래의 표본수는 1,519 명이나 본 연구를 위해 기혼자만 고려되어, 결과적으로 242 쌍의 부부가 본 연구의 표본으로 여겨졌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선행 분석으로 모든 변수들의 횡수 분포(frequency

distributions)가 계산되었다. 그 결과, 모든 중재 변수와 종속 변수의 분포가 비대칭적임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의복관리에 참여하는 시간에 있어서 228명의 남편이 그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중재 변수와 종속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알아보기 위해 Kolmogorov-Smirnov 분석이 행해졌고, 그 결과, 이들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회귀 분석에 있어서 유의도 판정의 기준으로 $p < 0.05$ 대신 $p < 0.01$ 이 이용되었다. 그리고 회귀 분석의 기초로서 χ^2 분석과 상관관계 검정이 행해졌다. 일단 이러한 선행 분석이 행해진 후, 연구 모형용 검정하기 위해 회귀 분석이 행해졌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1. 표본에 대한 일반적 특성

〈표 1〉에 모든 변수들에 대한 표본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고, 고용시간도 길고,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녀의 수는 1.5명이었고, 가계 수입은 연간 33,096.25 달러였다.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는 아내가 남편에 비해 보다 평등한 성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아내가 세가지 가사노동에 훨씬 많은 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상관관계의 검증 결과 아내의 연령과 남편의 연령 사이에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r=0.95$) 나타났기 때문에 아내의 회귀 분석에서는 남편의 연령이 독립 변수에서 제외되었고, 남편의 회귀 분석에서는 아내의 연령이 독립 변수에서 제외되었다. 〈표 2〉에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회귀 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남편의 경우 남편의 연령, 교육 수준, 그리고 아내의 고용시간 등이 남편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의 연령이 작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내의 고용시간이 길수록, 남편이 성역할 태도에 있어 보다 평등한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에게

〈표 1〉 표본에 대한 일반적 특성

변 수	남	내
독립 변수		
연 령 (년)	45.99 (13.83)	43.30 (12.98)
고용시간 (시간)	39.95 (18.90)	19.78 (19.11)
교육수준 (년)	13.44 (3.24)	12.82 (2.51)
자녀 수 (명)	1.50 (1.39)	
가계수입 (달러)	33,096.25 (18,449.12)	
중재 변수		
성역할 태도	28.74 (5.46)	30.39 (5.69)
종속 변수		
식 사 관 리 (분)	120.10 (154.11)	660.75 (353.08)
의 복 관 리 (분)	3.67 (21.12)	151.56 (168.02)
주 생 활 관 리 (분)	41.68 (133.45)	303.96 (267.08)

()는 표준 편차의 값임.

〈표 2〉 남편과 아내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변 수	남 편		아 내	
	Beta	t 값	Beta	t 값
남편의 연령	-0.293	-3.615*	--	--
아내의 연령	--	--	-0.342	-4.374*
남편의 고용시간	-0.083	-1.121	-0.072	-0.995
아내의 고용시간	0.315	5.341*	0.122	2.050
남편의 교육수준	0.262	3.466*	0.081	1.065
아내의 교육수준	-0.063	-0.878	0.188	2.613*
자녀의 수	-0.412	-0.617	-0.055	-0.819
가계 수입	0.014	0.193	0.120	1.667
R ²	0.269		0.260	
Adjusted R ²	0.247		0.238	
자유도	7,234		7,234	
F 값	12.316*		11.750*	

* p < 0.01

있어서는 아내 자신의 연령과 교육 수준이 아내의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연령이 적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아내가 성역할에 대해 보다 평등한 성향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3. 식사관리에 관한 회귀 분석의 결과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태도가 각각의 식사관리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의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따르면,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남편과 아내의 식사관리에 참여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남편이 성역할에 대해 보다 평등한 성향을 보일수록 남편은 식사관리에 보다 많은 시간 참여하였고, 아내는 식사관리에 보다 적은 시간 참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에 대해 평등한 성향을 보이는 남편일수록, 보다 자발적으로 식사관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아내의 성역할 태도는 남편과 아내가 식사관리에 참여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역할 태도와 더불어 다른 독립 변수들, 즉, 남편과 아내의 연령, 교육 수준, 고용시간, 자녀의 수, 그리고 가계 수입 등이 회귀 분석에 고려되었을 때의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과는 달리, 〈표 4〉에서는 성역할 태도와 식사관리에 참여하는 시간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내가 식사관리에 참여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아내의 고용시간만이 유의했고, 남편에게 있어서는 유의한 요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고용시간이 자신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시장의 대체물의 구입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시장 대체물과 식사관리의 시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고찰되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고용시간이 긴 경우, 시장 대체물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 대체물의 구입은 식사관리에 있어서 남편의 참여가 없더라도 아내가 식사관리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표 3〉 성역할 태도가 남편과 부인의 식사관리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변 수	남 편		아 내	
	Beta	t 값	Beta	t 값
남편의 성역할 태도	0.201	2.782*	-0.257	-3.660*
아내의 성역할 태도	0.009	0.119	-0.086	-1.217
R ²	0.042		0.095	
Adjusted R ²	0.034		0.087	
자 유 도	2.239		2.239	
F 값	5.268*		12.525*	

* p < 0.01

〈표 4〉 성역할 태도와 사회경제적 특성이 남편과 아내의 식사관리 참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변 수	남 편		아 내	
	Beta	t 값	Beta	t 값
남편의 성역할 태도	0.162	2.094	-0.132	-1.876
아내의 성역할 태도	0.067	0.883	0.022	0.318
남편의 연령	0.135	1.453	--	--
아내의 연령	--	--	0.109	1.323
남편의 고용시간	-0.060	-0.725	-0.035	-0.482
아내의 고용시간	0.178	2.576	-0.333	-5.307*
남편의 교육수준	0.121	1.412	0.065	0.834
아내의 교육수준	-0.071	-0.879	-0.123	-1.684
자녀의 수	0.013	0.176	0.164	2.456
가계 수입	-0.185	-2.288	-0.139	-1.931
R ²	0.112		0.272	
Adjusted R ²	0.077		0.244	
자 유 도	9.232		9.232	
F 값	3.236*		9.636*	

* p < 0.01

4. 의복관리에 관한 회귀 분석의 결과

〈표 5〉와 〈표 6〉은 의복관리에 관한 회귀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에서는 독립 변수로서 단지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태도만이 고려되었다. 회귀 분석의 결과,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태도가 각각의 의복관리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에서는 성역할 태도와 더불어 남편과 아내의 사회경제적 요소가 독립 변수로서 고려되어졌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남편과 아내의 의복관리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역할 태도가 남편과 부인의 의복관리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변 수	남 편		아 내	
	Beta	t 값	Beta	t 값
남편의 성역할 태도	0.153	2.099	-0.135	-1.841
아내의 성역할 태도	0.033	0.450	0.025	0.344
R ²	0.029		0.016	
Adjusted R ²	0.021		0.007	
자 유 도	2.239		2.239	
F 값	3.603		1.891	

〈표 6〉 성역할 태도와 사회경제적 특성이 남편과 아내의 의복관리 참여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변 수	남 편		아 내	
	Beta	t 값	Beta	t 값
남편의 성역할 태도	0.126	1.580	-0.103	-1.305
아내의 성역할 태도	0.017	0.222	0.014	0.186
남편의 연령	-0.193	-2.029	--	--
아내의 연령	--	--	0.058	0.626
남편의 고용시간	-0.205	-2.435	0.064	0.769
아내의 고용시간	0.002	0.027	-0.121	-1.709
남편의 교육수준	-0.172	-0.196	0.006	0.072
아내의 교육수준	0.025	0.297	0.031	0.372
자녀의 수	0.014	0.186	0.227	3.029
가계 수입	0.012	0.139	-0.019	-0.233
R ²	0.068		0.079	
Adjusted R ²	0.031		0.043	
자 유 도	9.232		9.232	
F 값	1.868		2.204	

5. 주생활관리에 관한 결과

〈표 7〉은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태도와 각각의 주생활관리에 참여하는 시간에 대한 회귀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의복관리에 참여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의 성역할 태도가 각각의 주생활관리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8〉은 성역할 태도와 더불어 다른 사회경제적

특성이 독립 변수로 고려되어졌을 때 회귀 분석의 결과이다. 남편의 경우, 각각의 독립 변수들이 주생활관리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고용시간이 자신의 주생활관리에 참여하는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고용시간이 많은 아내일 경우, 아내가 주생활관리에 적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역할 태도가 남편과 아내의 주생활관리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변 수	남 편		아 내	
	Beta	t 값	Beta	t 값
남편의 성역할 태도	0.003	0.040	-0.169	-2.321
아내의 성역할 태도	0.011	0.152	0.034	0.472
R ²	0.000		0.024	
Adjusted R ²	-0.008		0.161	
자 유 도	2.239		2.239	
F 값	0.020		2.969	

〈표 8〉 성역할 태도와 사회경제적 특성이 남편과 아내의 주생활관리 참여 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 분석

변 수	남 편		아 내	
	Beta	t 값	Beta	t 값
남편의 성역할 태도	-0.046	-0.578	-0.132	-1.718
아내의 성역할 태도	-0.019	-0.252	0.057	0.757
남편의 연령	-0.101	-1.061	--	--
아내의 연령	--	--	-0.127	-1.416
남편의 고용시간	-0.286	-3.404	-0.034	-0.426
아내의 고용시간	0.062	0.878	0.240	-3.500*
남편의 교육수준	-0.116	1.326	0.079	0.935
아내의 교육수준	0.034	0.408	-0.182	-2.281
자녀의 수	0.111	1.462	0.120	1.658
가계 수입	0.017	0.209	0.027	0.350
R ²	0.073		0.132	
Adjusted R ²	0.037		0.098	
자 유 도	9.232		9.232	
F 값	2.041		3.903*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중의 하나는, 모든 사회 경제적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성역할 태도가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 특히 식사관리, 의복관리 및 주생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단지 성역할 태도와 가사노동 참여 시간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경우, 오직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남편과 아내가 식사관리에 참여

하는 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동기 유발을 갖고 식사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내에게 있어서는 사회화 과정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는 반면, 남편에게는 성역할 태도가 가사노동의 참여에 반영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해석은 Berk(1985)의 연구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데, 즉 “좋은 주부가 되는 것”과 같은 사회적 규범의 성향은 아내의 가사노동 참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남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규

범적 성향은 남편이 얼마나 가사노동에 참여하는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아내의 고용시간이 남편의 식사관리, 의복관리, 그리고 주생활관리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고용된 아내들이 가사노동과 사회 활동으로 기인한 이중 부담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아내가 아직까지도 가정 내에서 가정을 돌보는 책임자로, 그리고 남편이 일차적인 경제적 부양자라는 인식에 큰 변화가 없음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식사관리, 의복관리, 그리고 주생활관리에 참여하는 시간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남편이 의복관리나 주생활관리에 비해 식사관리에 보다 많은 시간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활동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식사관리는 매일 매일 제 시간에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의복관리나 주생활관리에 비해 더 많은 긴급성을 갖고, 따라서 다른 가사노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남편이 식사관리에 좀 더 많은 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남편이 식사관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 활동에 대해 남편이 아내와 같이 식사관리 활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남편은 식사 준비를 하는 아내를 돕거나 또는 개수대에 그릇을 갖다 놓거나, 또는 냉장고에 음식을 갖다 두거나 하는 정도로 아내를 도와주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참여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돕는 것”에 차이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록 남편과 아내의 연령과 교육 수준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성역할 태도의 차이에 따른 가사노동의 참여 시간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젊은 나이의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성역할에 더욱 평등한 성향을 나타냈으나, 이런 사람이 아무리 평등한 성향을 갖는다 하더라도, 가사노동에 있어서는 성(性)에 따른 전통적인 역할 분담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사노동의 참여에 있어서는 태도와 행동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런 불일치에 대한 이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1981년에 수집된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에 현재와 비교했을 때 성역할 태도 또는 가사노동의 참여 시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보다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중에서 전통적으로 “아내의 영역”으로 여겨진 식사관리, 의복관리, 그리고 주생활관리만 고려되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집안 수리와 같은 “남편의 영역”과 쇼핑과 같은 “남편과 아내의 공동 영역”의 가사노동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Abdel-Ghany, M., & Nickols, S.Y. Husband/wife differentials in household work time : The case of dual-earner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 1983, 159-167.
- 2) Becker, G.S.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3) Berardo, D.H., Shehan, C.L., & Leslie, G.R. A residue of tradition : Jobs, careers,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987, 381-390.
- 4) Berk, R., & Berk, S.F. *Labor and leisure at home*.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1979.
- 5) Berk, S.F. *The gender factory : The apportionment of work in American households*. New York : Plenum Press, 1985.
- 6) Bird, G.W., Bird, G.A., & Scruggs, M. Determinants of family task sharing: A study of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984, 345-355.
- 7) Brogan, D., & Kutner, N.G.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 : A normative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1976, 31-40.
- 8) Canter, R.J., & Ageton, S.S. The epidemiology of

- adolescent sex-role attitudes. *Sex Roles*, 11, 1984, 657-676.
- 9) Dickinson, G.E., & Leming, M.R. *Understanding families*. Boston : Allyn & Bacon Inc., 1990.
 - 10) Dismukes, D.L., & Abdel-Ghany, M. Homemakers' household-work time in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1988, 247-256.
 - 11) Erdwins, C.J., Tyer, Z.E., & Mellinger, J.C. A comparison of sex role and related personality traits in young, middle-aged, and older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7, 1983, 141-151.
 - 12) Fox, K.D., & Nickols, S.Y. The time crunch : Wife's employment and family 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4, 1983, 61-82.
 - 13) Geerken, M., & Gove, W.R. *At home and at work : The family's allocation of labor*.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1983.
 - 14) Hafstrom, J.L., & Schram, V.R. Housework time of wives : Pressure, facilitators, constraint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 1983, 245-255.
 - 15) Hall, F.T., & Schroeder, M.P. Effects of family and housing characteristics on time spent on household tasks. *Journal of Home Economics*, 62, 1970, 23-29.
 - 16) Keith, P.M., & Schafer, R.B. Housework, disagreement, and depression among younger and older coupl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 1986, 405-422.
 - 17) Kutner, N.G., & Brogan, D. An investigation of sex-related slang vocabulary and sex-role orientation amo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1974, 474-484.
 - 18) Lipman-Blumen, J. How ideology shapes women's lives. *Scientific American*, 226, 1972, 34-42.
 - 19) Martin, P.Y., Osmond, M.W., & Hesselbart, S. The significance of gender as a social and demographic correlate of sex role attitudes. *Sociological Focus*, 13, 1980, 383-396.
 - 20) McBroom, W.H. Changes in sex-role orientations : A five-year longitudinal comparison. *Sex Roles*, 11, 1984, 585-600.
 - 21) Meiners, J.E., & Olson, G.I. Household, paid, and unpaid work time of farm women. *Family Relations*, 36, 1987, 407-411.
 - 22) Nickos, S.Y., & Metzner, E.J.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1978, 85-97.
 - 23) Perrucci, C.C., Potter, H.R., & Rhoads, D.L. Determinants of male family-role performa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 1978, 53-66.
 - 24) Rao, V.V.P., & Rao, N. Sex-role attitudes across two cultures : United States and India. *Sex Roles*, 13, 1985, 607-624.
 - 25) Rexroat, C., & Shehan, C. The family life cycle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987, 737-750.
 - 26) Robinson, J.P. Who's doing the housework? *American Demographics*, December, 1988, 24-27.
 - 27) Ross, C.E.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 1987, 816-833.
 - 28) Sanik, M.M. Division of household work : A decade comparison-196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1981, 175-180.
 - 29) Schram, V.R., & Hafstrom, J.L. Family resources related to wife's time inputs to housework.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1986, 235-245.
 - 30) Shelton, B.A. The division of household tasks : Does wife's employment status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11, 1990, 115-135.
 - 31) Smith, M.D., & Fisher, L.J. Sex-role attitudes and social class : A reanalysis and clarificatio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13, 1982, 77-88.
 - 32) Stafford, K. The effects of wife's employment

- time on her household work tim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 1983, 257-266.
- 33) Thornton, A., Alwin, D.F., & Camburn, D. Causes and consequences of sex-role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1983, 211-227.
- 34) Tomeh, A.K. Sex-role orientation : An analysis of structural and attitudinal predi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1978, 341-354.
- 35) Walker, K.E., & Woods, M. *Time use :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D.C. :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76.
- 36) Wheeler, C.L., & Arvey, R.D.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 1981, 10-20.
- 37) Zuckerman, D.M. Family background, sex-role attitudes, and life goals of technical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Sex Roles*, 7, 1981, 1109-1126.